

3대 메리와 쌀나무

이 철 주(KIST)

〈글을 부탁 받았다. 잘 쓰지도 못하고 워낙 산만하다. 게다가 아직도 ‘왕손병’이 남아있어 읽기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해 바란다. 어차피 쉽터니까.〉

김포. 나의 친가와 외가가 수 백년을 산 곳이다. 그래서 서울서 나고 자란 나도 그곳이 고향같이 느껴진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방학하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방학 때 시골가는 사람들은 신고하라고 해서 손을 들었다. 군밤만 맞았다. 김포도 시골이냐고. 김포는 시골이다. 비록 서울과 붙어있지만, 강화까지 이어지는 국도의 포장도 경부고속도로 보다 늦었던 시골이다. 그 비포장 국도마저도 어린애 머리통만한 쟁돌이 굴러다니는 정말 열악한 길이었다.^{1,2}

나는 초등학교 내내, 심지어 중학교 때까지도 방학만 하면 다음 날로 김포로 가곤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는 혼자서 서울역 앞의 시외버스 차부에서 텀털이 버스를 타고 외갓집으로 가선 ‘정말로’ 실컷 놀다 개학 전날 돌아오는 것이 내 방학의 전부였다. 많은 친척집이 김포에 있었지만 굳이 외갓집에서 방학을 보냈던 것은 외가에는 언제나 같이 놀 또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5남매 가운데 외아들이셨던 외삼촌께서는 슬하에 7남매를 두셨는데, 그러다 보니 그 집에는 방학 때면 물려드는 우리 사촌들을 상대할 충분한 병력이 연령별로 구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방학 때면 어지간한 산골 분교만한 아이들이 그 집에 들락거렸는데, 그 많은 애들을 다 견어주셨던 외숙모도 대단한 분이셨다는 생각이다. 물론 대단한 부농이기도 했지만 그 많은 손님 조카놈들, 해 먹이는 것만해도 어마어마한데 개학이 되어 돌아갈 때는 옷 한 벌씩 사 입히고 또 이것 저것 싸서 보내 시곤 하셨다.

외삼촌께서는 많은 농사를 보살피시느라 항상 바쁘셨으나 그렇다고 우리 조카놈들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별의 별 장난을 하다 보니 정말로 별의 별 사건이 다 생겼다. 날가리에 불을 질러서 온 동네를 다 태울 뻔도 했고, 남의 집 눈에 뛰어 들어 놀다가 벼를 다 쓰러뜨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동네에 무슨 일만 생기면 자연스럽게 ‘늪집의 손님 조카놈들’이 항상 첫번째로 용의선상에 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우린 외삼촌이 무서워 집에도 못 들어가곤 했었는데, 외삼촌께서는 우리를 야단치시다가도 따지러 온 동네 사람들에게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시며 우리 편을 들어 주시곤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민폐만 끼친 것은 아니었다. 종일 쏘다니며 놀면서도 개구리 잡아다 닭 주고, 뱀 잡아다 돼지 주고, 가끔은 보에 가서 물을 퍼서 붓어부터 메기, 가물치까지 수산물도 잔뜩 잡아오기도 하고, 손을 엄청나게 물리면서도 참깨(이를 그대로 참깨이다. 지금도 무척 비싸다.)를 잡아와서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했었다. 그 뿐인가? 저녁이면 소들을 몰고 나가선 풀을 뜯겼으며, 집 근처의 텃밭에서 오이, 토마토를 매일 따 나르는 것도 우리 몫이었다. 그 때 나는 매일 따도 다음날이면 또 한 소쿠리씩 되는 오이와 토마토의 생산성에 감탄을 하곤 했었다.

또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할 때는 우리 조카놈들도 자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밥값을 하곤 했었다. 나는 가끔 눈에 나가 농약 펌프질을 하곤 했는데, 누나가 새참으로 내 오는 빵을 먹는 재미에 힘든 줄도 몰랐었다.

겨울 방학에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밥값도 못하고 방학을 보냈었다. 겨울에는 명절이 있어서

인지 항상 먹을 것이 넘쳐 났었는데 엿, 떡을 입에 달고 살았고 사랑채 마루에 쌓아 놓 가마니 사이로 고구마를 빼먹는 재미도 일품이었다.

그런 식으로 방학을 마치고 새까맣게 되어서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은 월남갔다 왔느냐고 놀렸었는데, 그 곱던³ 얼굴이 지금은 많이 망가진 것도 아마 그 때 들로, 물로 쪼다니느라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되었던 때문인 듯하다.

외삼촌이 그 많은 논, 밭, 특용작물 심지어 인삼 농사를 관리하고 또 그 많은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내는 것을 보고 나는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었다. 그 집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몹시 단순하였는데, 어느 때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는 것 뿐이었다.

요즘은 고분자 산업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찾아 볼래야 볼 수도 없지만, 그때는 벚짚으로 만든 새끼와 가마니도 하나의 훌륭한 재산이 되곤 하였다. 그 집의 너른 안 마당 한 쪽에는 새끼 꼬는 기계가 항상 서 있었는데, 식구 가운데 새끼를 꼴 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지나가다가도, 또는 시간이 남으면 기계에 올라 앉아 새끼를 꼬곤 했다. 그러다 보니 따로 새끼를 일 삼아 꼬는 것이 아닌데도 항상 새끼뭉치가 넘치도록 쌓여 있곤 하였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그 집 식구들은 할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법이 없었다.

공부도 그렇다. 공부를 잘하거나 흥미가 있는 자식은 공부시키고, 공부에 별 관심이 없으면 기본만 보낸다. 굳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대학 가라고 들볶거나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안 일하기를 너무 좋아하던 사촌동생 하나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지금도 같은 동네 살면서 함께 그 집 일을 하는데 여간 밝지가 않다. 또 항상 책보고 뭐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 이젠 농사도 공부 안하면 안 된다며 웃는 그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가 얼마나 즐거울 수 있나 하는 것을 알았다. 자식들이 일류대학을 잘 들어 갔느냐로 자식농사를 평가하는 세속의 눈이 부끄러웠다.

나이를 먹고, 자식을 기르며, 정신없이 살다 어릴 때의 그 곳이 생각나서 애들을 데리고 외가를 찾았다. 외삼촌께서 나를 보시더니,

“잘 왔다. 나랑 논에 좀 나가자.”

나는 속으로 ‘아니, 요즘도 농약 지냐?’ 하면서 멋도 모르고 따라 나섰다. 외삼촌과 나, 그리고 그 집에서 3대째 살고 있는 ‘메리’⁴

나는 좁은 논두렁 사이로 균형을 잡고 걸으며 외삼촌이 말씀하시는 그 논들의 내력과 벼의 상태 등을 들어야 했다. 갑자기 외삼촌께서,

“메리아, 가서 담배 좀 가져 오너라.”

나는 어리둥절했다. 벌써 집으로 되집어 뛰어 가는 메리를 보고, 외삼촌을 보곤 했지만 아무 내색도 없으시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 메리가 돌아왔다. 가증스럽게도…… 입에는 담배와 라이터까지 물고 있었다.

‘아니 저 놈이 개냐, 아니면 개 탈을 쓴 여우냐’ 황당해 하는 나를 보시며 외삼촌은 의기양양하게 담배를 피워 무셨다.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 보면 저 정도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메리를 보고 맛을 생각했던 나는 부끄러웠다. 또 한참을 걸었다. 갑자기 외삼촌께서,

“이 벼와 이 벼의 차이가 뭐지 아느냐?” 하신다. 논두렁 양쪽의 두 논에 서로 다른 벼를 심으신 모양인데 내 눈에는 차이가 없었다. 정말 똑 같았다.⁵ 그 때부터 나는 한참동안 야단을 맞았다. 아마 외삼촌께서는 평소에 공부 잘하는 나에 대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계셨었나 보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업이라는 놈이 이것도 구별을 못 하느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벼를 쌀나무라고 하는 거야. 자기 일도 충실히 못 해서야……” 외삼촌께서는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나를 질타하셨고, 대한민국 박사들의 전문성 부족을 한탄하셨다. 아…… 참담하였다.

‘저는 벼를 연구하는 게 아니구요 …’ 이 소리가 목에 맴 돌았지만 결국 할 수 없었다. 그 소리를 한다고 전세를 만회할 수 있는 상황도 이미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깨지고 돌아오는 길에 성큼성큼 앞서 가시는 외삼촌과

그 결의 메리, 그 환상의 복식조를 보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 수 있는가를 보았다.

그러나 꼭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었다. ‘저기 저 비닐하우스의 비니루와 팽봉지 비니루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 김포도 가본지 오래되었다. 그 땅을 밟아 보고 싶다.

¹ 전설 1 : 중학교 시절 내 친구의 누이가 회사에서 강화도 전등사로 야유회를 갔던 적이 있었다. 전세버스로 다녀온 모양이었는데, 야유회 다음날로 입원을 했다. 병명은 디스크. 차가 비포장 길에 너무 흔들려서 그렇게 되었다. 나는 그 때 그 소리에 몹시 창피했었다.

² 전설 2 : 김포에서 서울은 100리길이라고 한다. 그 100리가 멀어서 평생 서울구경을 못 해보고 생을 마치신 분이 많았다 한다. 우리 친척 어르신 한 분도 그런 분이셨는데, 한번은 이분이 식사도중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적이 있었다. 과학적, 심지어 주술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도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서울의 병원으로 가기로 했었다. 하루에 두 세번 오는 버스를 타고 서울 가는 100리 길을 시작했는데, 차가 하도 덜컹거리서 금방 목의 가시가 빠져버렸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른은 평생 서울 구경을 못해보고 돌아가셨다.

³ 내 얼굴이 예쁘고 고왔다는 것을 나도 중학교 때에야 알았다. 중학교 때 내 얼굴에는 버짐이 많이 났었는데, 고민하는 나에게 어머니께서 그 비밀을 들려주셨다. 내가 어릴 때 하도 예쁘고 귀여워서 동네 아줌마, 누나들이 안고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보다 걸음마도 늦었다고 한다. 땅을 밟아 볼 시간이 없었던 탓이다. 그런데 그냥 안아주기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예쁘다고 두 볼을 짹짹 빨아대곤 했었다. 그렇게 아기의 연약한 살에 침 범벅을 해 놓아서 훗날 그 부작용으로 내 얼굴에 버짐이 많이 피었던 것이다.

⁴ 메리의 할머니도, 엄마도 다 메리였다. 도대체 우리 외삼촌은 개 이름은 메리 뿐이 없는 줄 아신다. 똥개인데 참 충실한 외삼촌의 비서이다.

⁵ 정말 똑같았다. 아무리 들여다 봐도 앞사귀 하나 차이가 없었다. 뜯어다 전자현미경이라도 찍어 봐야 구별이 될까?

PVC 발명자 Semon 박사 100세로 서거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닐로 잘 알려진 비닐 중합체의 대표적 제품 polyvinyl chloride(PVC)의 발명자 Waldo L. Semon 박사가 지난 5월 26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비닐”(vinyl) 즉 PVC 제품은 1926년에 시장에 나온 이래로 건축자재, 전기 절연제, 파이프, 자동차 부품, 비닐 장판, 인조 가죽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연간 440억 파운드의 생산량으로 200억 달러의 막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BF Goodrich 고무회사의 젊은 연구원 Semon 박사는 금속에 접착하는 고분자의 합성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여가시간에) 방수성, 내화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고 유연성이라서 가공이 편리한 가소화 PVC를 발명하게 되었다. “Koroseal”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된 이 유용한 플라스틱은 우산, 비옷, 방수막으로 사용되었다. 그는 전쟁 중 부족사태로 곤란을 겪은 천연고무에 대체되는 부타디엔계 합성고무 “Ameripol”을 발명하여 가스 마스크, 타이어 등 연합군의 전쟁물자 제조에 기여하였다.

이차대전 후 Semon 박사는 BF Goodrich사의 고분자 연구소장으로 1963년까지 근무하며 다양한 합성고무의 생산에 공헌하였고, 은퇴 후에는 Kent 주립대학 교수로 봉직하였다.

〈C&EN, p. 37, July 12, 1999/KIST 안광덕〉